

東武 李濟馬의 哲學과 醫學

鄭 遇 悅*

東武 李濟馬(1873-1900)는 朝鮮末期의 사람으로 醫學者이기 이전에 哲學者(儒學者)이다.

일반적으로 李濟馬의 醫學은 '四象醫學'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李濟馬의 哲學이 '四象學' 에 基礎하였기 때문이며 '四象醫學' 은 이 '四象學' 을 基本으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醫源論』에서 "나는 醫學經驗이 있는지 5, 6천년 후에 태어나서 옛 사람들이 저술한 의서를 통하여 우연히 四象人 臟腑性理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한 권의 책을 저술하니 이름하여 『壽世保元』이라 한다 (余生於醫藥經驗五六千載後 因前人之述 偶得四象人臟腑性理 著得一書名曰壽世保元)" 고 하여 그가 『東醫壽世保元』을 짓게 된 동기와 그 내용이 四象人의 臟腑性理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러면 그가 우연히 발견하였다고 하는 '四象人 臟腑性理'란 과연 무엇이며, 그것은 정말 우연히 깨달아진 것인가?

이에 앞서 우리는 위의 "옛 사람들이 저술한 의서를 통하여 우연히 臟腑性理를 발견하였다. (因前人之述 偶得四象人臟腑性理)"고 한 그의 말에서 '우연히' 터득하였다는 四象人 臟腑性理가 옛 사람들의 기존 의서를 통하여 깨달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옛 사람들의 저술을 읽다가 四象人과 연계

가 되어 우연히 깨달은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요구되므로 이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만일 東武가 옛 사람들의 기존 의서를 통하여 臟腑性理를 깨달았다면 李濟馬의 醫學은 기존 의학의 맥락에서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므로 독자적 가치가 없을 것이요, 한편 기존의학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얻어졌다 할지라도 '四象人'을 통한 기존과 다른 臟腑性理를 얻었다면 새로운 醫學이 될 것이다.

여기서 東武가 '우연히'라고 한 것은 앞의 사람들이 저술한 의학서적을 보다가 우연히 떠오른 생각이 '四象人'이며 '臟腑性理'는 이 '四象人'을 통하여 발견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東武의 '四象人 臟腑性理'의 발견은 그것이 우연이라 할지라도 우연한 발견이 아니며 四象人을 통한 필연적 발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東武 醫學에서 우리가 研究할 課題는 그가 醫學에 앞서 哲學이 우선인지? 그렇지 않으면 哲學에 앞서 醫學이 앞서는가에 있다. 즉 東武 醫學에서 우선 되는 것은 '臟腑性理'가 아니라 '四象人'이다. 그런데 '四象人'은 醫學의 問題가 아니라 哲學의 對象이다. 東武의 哲學이 醫學에 우선되는 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면 東武가 言及한 '四象人'이란 무엇인가?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이 用語는 李濟馬 이전의 조선 의학사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中國醫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用語이다. 오직 이 말은 李濟馬의 哲學書인 『格致藁』에서만 발견된다. 그런데 이 『格致藁』는 四象醫學의 原典인 『東醫壽世保元』은 저술하기에 앞서 庚辰(1880)에서 癸巳(1893)까지 14년간을 거쳐 쓰여진 그의 사상의 방향기록으로 이 방향의 자취가 『東醫壽世保元』 『性命論』과 『四端論』에 압축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四象人'이 李濟馬의 哲學思想에서 연유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그의 醫學의 基本思想이 '臟腑性理'로 이것이 四象哲學에 根據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때 東武가 '四象人의 臟腑性理'를 깨달은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며 기존의학의 연구과정에서 그의 四象哲學을 통하여 체계화된 새로운 독자적 의학이라 아니할 수 없다. 『東醫壽世保元』은 바로 이러한 李濟馬의 四象醫學을 집대성한 原典이다. 그러므로 『東醫壽世保元』은 그것이 醫學書라 하더라도 단순한 임상책이 아니며 거기에는 四象醫學의 基本原理를 說明한 基礎理論이 포함되어 있다. 즉 『東醫壽世保元』1권의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 등은 모두 基礎理論으로 그의 哲學書인 『格致藁』를 읽지 않고는 理解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것처럼 당시의 의학책들이 哲學적으로 설명된 것은 한의학에 대한 認識論으로 哲學的方法이 導入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그것이 哲學的方法이라 할지라도 당시 主導의 思想인 主理의 立場의 性理學的 哲學方法과는 다르다는 데 있다. 李濟馬의 醫學이 기존의학과 다른 점이 또한 여기에 있다. 즉 기존의학의 인식방법이 性理學的 認識方法이었다면 東武의 그것은 또 다른 새로운 哲學的方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東武의 새로운 哲學이란 과연 무엇일까?

흔히들 東武의 哲學的 立場을 反朱子學이니 改新 儒學이니 하는 것은 東武 哲學이 바로 당시 이데올로기인 朱子學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에 있기 때문이고, 또한 그의 學派를 蕢菴 韓錫地(1769-1863)에 연계시키는 것도 蕢菴의 學問경향이 反朱子學的 입장에 있기 때문이지 결코 이들의 承師關係를 입증할 역사적 자료는 없다. 東武와 蕢菴의 관계는 蕢菴 沒後의 私叔關係이며 蕢菴의 저서인 『明善錄』 어디에서도 東武의 四象哲學은 찾아볼 수 없다.

東武가 지향한 사상의 어휘나 논리적 구조 (syntactic structure)가 기존 담론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사실로 보아 그의 사상은 기존의 어떠한 유파개념과의 관계에서 규정할 수 없는 독자적 사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東武의 사상이 아무리 독자적이고 기존의 조선사상사와 단절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조선사람으로 한 시대를 살았다는 점에서 조선사상사나 의학사의 맥락에서 그의 사상이 유리 될 수는 없다. 그러면 그의 독자적 철학이란 기실 무엇이며 그것은 어대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그의 독자적 철학이란 새로운 철학사상인 '四象哲學'을 말하는 것으로 『格致藁』는 바로 東武 哲學의 原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東武 哲學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는 『格致藁』를 研究하지 아니하고는 東武 哲學을 理解할 수 없으며, 李濟馬의 醫學을 理解하기 위하여는 李濟馬의 醫學이 『東醫壽世保元』에 담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의 認識論的方法의 哲學思想을 理解하기 위하여는 또한 『格致藁』를 研究하지 않을 수 없다.

東武의 醫學을 臨床과 理論의 두 면에서 理解하여야 한다면 『格致藁』는 臨床에 앞서 理論을 理解하는 哲學書가 될 것이다. 그가 四象醫學의 原典인 『東醫壽世保元』을 쓰기에 앞서 『格致藁』를 먼저 쓴 것은 그가 醫學에 앞서 그의 哲學이 먼저 이루어졌

다는 것이고, 『東醫壽世保元』에서 『性命論』과 『四端論』을 말한 것은 그의 醫學理論이 그의 哲學四象에 根據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東醫壽世保元』이 완성된 것이 1894년 4월 13일의 일이니 四象醫學이 세상에 나온지도 올해로 꼭

10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도 李濟馬의 醫學을 위해서 지적한 李濟馬의 哲學이 무시된채 단순히 『東醫壽世保元』에만 국한되어 그의 本來 精神과는 동떨어진 다른 각도에서 理解하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